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보아 일본 7집 국내서도 발매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 24)의 일본 7집 '아이덴티티(Identity)'가 국내에서도 발매됐다.

일본에서 지난 10일 출시된 7집은 보아가 데뷔 후 처음으로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이 음반에는 일본 그룹 엠-플로의 버벌이 피처링한 '범프 범프(BUMP BUMP)!', 등 다양한 장르의 곡 13곡이 수록됐다.

보아는 이중 '디스 이즈 후 아이 엠(This Is Who I Am)', '이지(EASY)', '폴린(Fallin)' 등 4곡은 작사 · 작곡했으며, '네코 러브(고양이러브)'와 '마이 올(my all)' 등 2곡은 작사해 총 6곡의 작업에 참여했다.

'땟물 초복이' 껍질 벗으니 어때요?

'추노'의 귀여운 노비

민 지 아

KBS 2TV '추노'의 여주인공 언년(이다해 분)이는 요즘 '민폐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극중 남자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네티즌 사이에서 '추노에서 유일하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여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노비 초복이다. 〈관련기사 11면〉

데뷔 6년 '중고신인' 첫 배역 맡아

"연기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초복이가 대담하면서도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겁도 없고 능동적이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다행이죠.(웃음)"

초복이 역의 민지아(26)는 극중에서와는 전혀 다른 '깔끔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나섰다.

초복이는 노비라 얼굴에 온통 검은 칠을 한다. 촬영을 시작한 이래 더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수개월째 빨지 않은 옷에서는 땟국이 줄줄 흐른다. 연기라지만 여배우로서는 속상할 듯하다.

"목욕할 때 까만색 물이 땟물처럼 한참 나와요. 처음에는 분장 알레르기도 생겼어요. 특수분장이라 피부가 좀 많이 상했죠. 분장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게 초복이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초복이로서 예뻐 보이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초복이는 '추노'에서 대길(장혁 분)이 패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노비당의 일원이다. 사회 변혁을 꿈꾸는 노비들이 연대해 노비당을 만들고 부패한 양반을 공격하는데, 초복이는 사냥꾼 출신 노비인 업복(공형진)을 좋아하는 인연으로 노비당의 유일한 여자 회원이 된다. 노비지만 총명한 덕분에 언문을 깨우쳐 까막눈인 다른 노비를 대표해 지령이 적힌 서찰을 읽는 역할도 한다.

"초복이는 도망치다 어머니는 죽고 얼굴에 낙인이 찍히게 된 아이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업복이 덕에 목숨을 구하게 되니까 업복이를 좋아하게 되죠. 호기심이 많고 엉뚱한 면도 있어 노비당 일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노비라 옷이 변변치 않으니 가뜩이나 추운 날씨는 더욱 매섭게 다가온다.

"정말 이러다 얼어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요. 노비라 처음에는 맨발로 다니기도 했어요. 너무 추워지니까 버선이 지급되기는 했는데 야외 촬영에서 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업복이랑 나름대로 멜로 신을 찍는데 너무 추우니까 업복이의 콧물이 나오는 거에요. 얼마나 웃겼던지…."

민지아는 데뷔 6년차 중고신인이다. 단막극과 뮤직비디오 주인공도 했고 이런저런 드라마에도 얼굴을 내밀었지만 '추노'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분장을 지우고 다니면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난생처음 그가 맡은 배역 초복이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제가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인데 연기만큼은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연기는 제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에요. 계속 노력하면 인정받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지붕뚫고 하이킥'

이 영 철 작가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제까지 앙숙이던 사람이 급격히 화해하면서 끝난다든가 하는 안일한 엔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공감하는 엔딩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지붕킥)'의 이영철 작가는 한눈에 보기에도 작가티가 물씬 나는 모습이었다. 방송이 시작할 때 나오는 크레디트에서 그의 이름 대신 들어간 '새우등'이라는 별명도 떠올랐다. 늘 허리를 굽히고 대본 원고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대본 작업에 매달리기 때문에 주변 작가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먼저 물어본 것은 역시 '지붕킥'의 엔딩이었다. 누리꾼들이 수많은 추측과 '괴담'을 늘어놓는 가운데 이영철 작가는 엔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힌트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는 "제작진 내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대략적인 큰 그림은 다 그려진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더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슬픈 엔딩이라도 시청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해피'한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극 중에서 해리(진지희 분)가 신애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착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엔딩을 위한 '해빙' 분위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해리의 변화는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라며 "해리뿐 아니라 신세경, 신애 등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의 성장 이야기가 '지붕킥'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신세경이 '사랑니'를 뽑으며 이지훈(최다니엘)에 대한 마음을 접는 사랑니 에피소드와 황정음이 해변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지는 '떡실신' 에피소드를 들었다.

지금 종영을 앞두고 주말마다 수정 대본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는 "전작인 '거침없이 하이킥' 때는 연기자와 스태프가 모여 마지막 회를 함께 보면서 종방연을 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